

2007. 10. 19.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07년 10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생산부서: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tel. 02-958-4603

KDI 대외협력팀 tel. 02-958-4030 fax. 02-960-0652

## ‘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’, 경험 합의사항 중 가장 기대감 높아

- ‘2007년 남북정상회담’ 경험부문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-

### 1. 조사 개요

- 조사 대상
  - : 경제전문가 378명
  - \*교수:145명, 연구원:69명, 기업인:69명, 금융전문가:56명, 투자분석가 39명
- 조사기간
  - : 2007. 10. 8 ~ 10. 11
- 조사방법 : e-mail

### 2. 조사 결과 요지

- ◇ 경제전문가의 73.0%, 경험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- ◇ 경제전문가의 76.7%, 향후 남북경협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
- ◇ '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'가 경험부문 합의사항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
- ◇ 경험부문 각 사업별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강해
- ◇ '일방적 퍼주기' 논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
- ◇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'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'가 가장 필요
- ◇ 경제전문가 69.3%, '북한의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 가며 지원해야'
- ◇ 경험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방법으로 '민간자본유치'를 가장 많이 꼽아
- ◇ 기업들의 경험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'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책당국의 안전보장'이 가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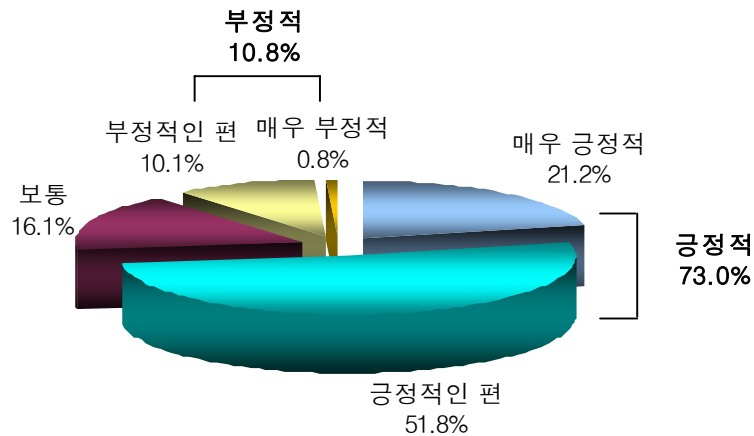
### 3. 조사 결과 요약

#### 1) 남북정상회담 경험부문 평가

□ 경제전문가 73.0%, 경험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
- '2007년 남북정상회담'에서 합의된 경험부문 전반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73.0%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경제전문가는 10.8%에 불과

[경험부문 합의사항에 대한 전반적 평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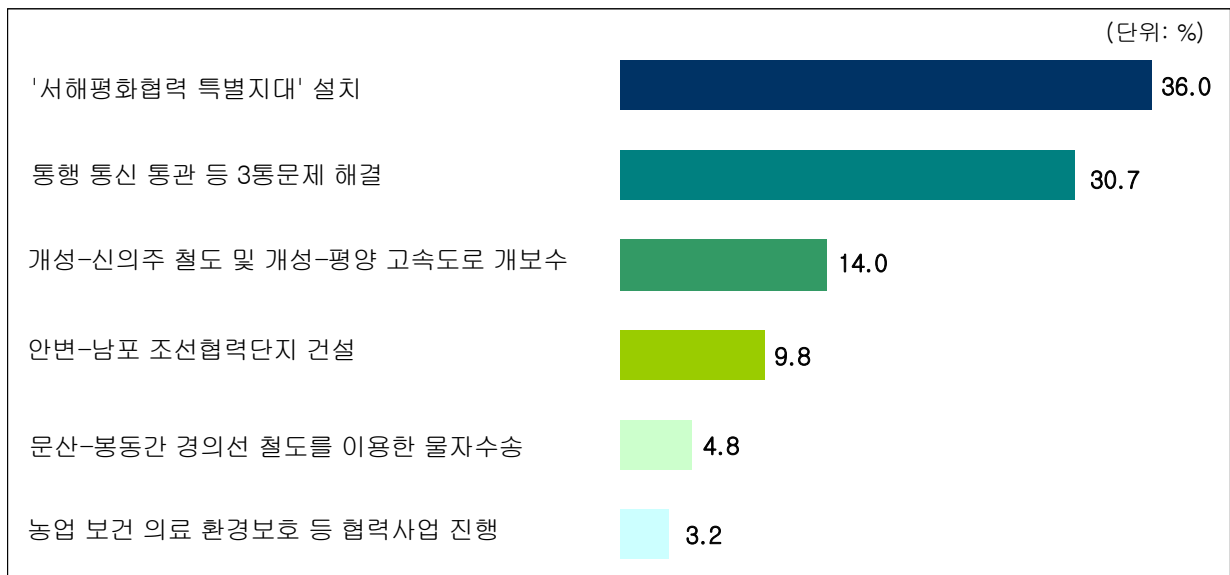


-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전문가 중 과반수 이상(56.5%)은 그 이유로, '경협 증대로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'이라고 응답했으며, 29.3%는 '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'을 꼽아
- 한편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, '경협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'(39.0%)을 가장 많이 지적

□ **경협 합의사항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‘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’**

- 경협부문의 주요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6개 사업들 중 ‘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’(36.0%)를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꼽았으며, 다음으로는 ‘통행·통신·통관 등 3통 문제 해결’(30.7%)이 기대된다고 응답

[가장 기대되는 사업]



□ **경협부문 각 사업별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강해**

- 경제전문가의 88.6%가 ‘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합의’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
- 북한 지역의 도로 개보수 및 철도 화물 수송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관련 합의가 남북 간 물류비 감소와 수송기간 단축으로 이어져, 남북경협의 가속화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86.0%의 경제전문가가 동의
- 한편 경제전문가의 93.1%가 제2, 3의 개성공단 조성, 안변·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이 경협 활성화 및 북한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□ ‘일방적 퍼주기’ 논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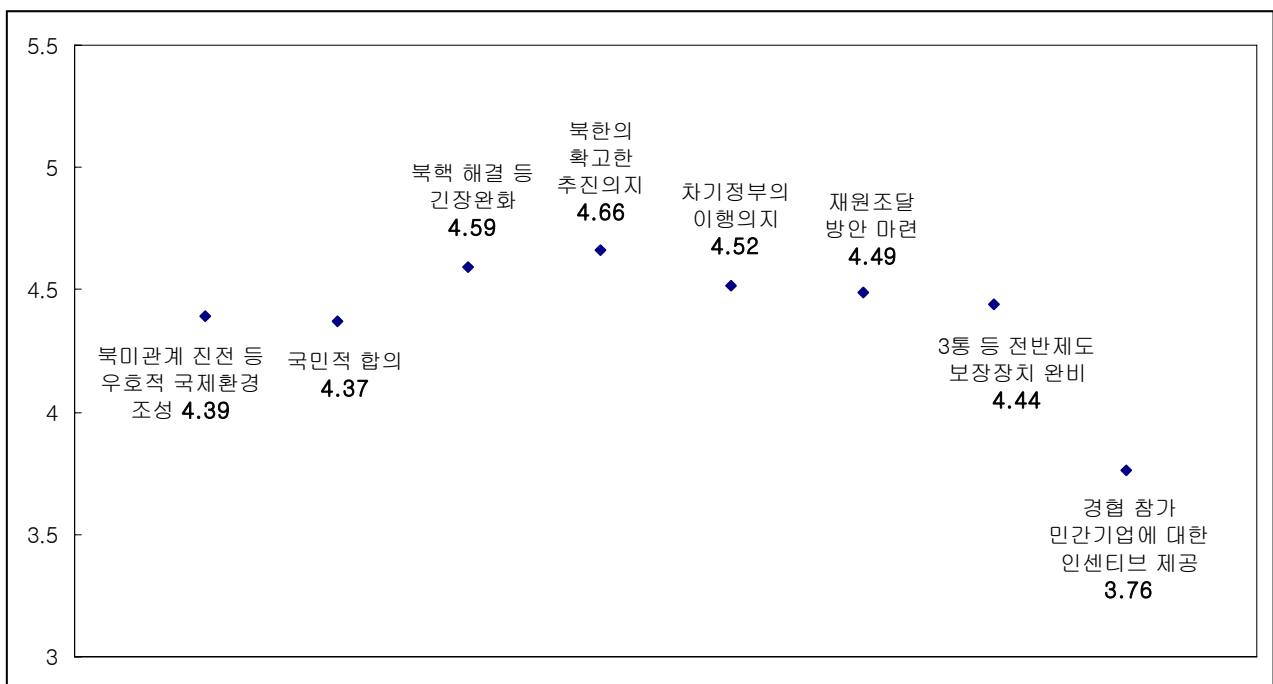
- 이번 정상회담 결과 경협부문의 합의내용이 막대한 자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‘일방적 퍼주기’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, 경제전문가의 51.6%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.
- 반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는 경제전문가도 48.4%에 이르는 등 ‘일방적 퍼주기’ 논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느 한 쪽의 우세로 보기 힘들어 ‘퍼주기’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

2)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및 전망

□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‘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’가 가장 필요

-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부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 중 ‘경협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’(65.1%)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의 90% 이상이 그 필요성을 인정
- 한편 경협부문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간에 필요성 정도를 세밀하게 비교하기 위해 5점척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, 경제전문가들은 ‘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’(4.66)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, 다음으로는 ‘북핵 해결 등 남북긴장 완화’(4.59), ‘차기정부의 이행의지’(4.52) 순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

[경협부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]



□ **경제전문가 69.3%, ‘북한의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 가며 지원해야’**

○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과의 관련성에 대해, 경제전문가의 69.3%가 ‘북한의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 가며 지원해야 한다’고 응답해, 북핵 문제가 합의사항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

- 반면 ‘북핵 문제에 상관없이 선투자·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’는 응답은 29.6%였음.

□ **경협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방법으로 ‘민간자본 유치’ 를 가장 많이 꼽아**

○ 남북경협에 필요한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 방법으로, 경제전문가들은 ‘민간자본 유치’(41.5%)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다음으로는 ‘남북경제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조달’(20.4%)이 바람직하다고 응답

□ **기업들의 경협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‘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책당국의 안전보장’ 이 가장 필요**

○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협투자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‘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책당국의 안전보장’(42.1%)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, 다음으로는 ‘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이행 의지’(31.0%), ‘북한의 투자관련 제도 개선’(24.1%)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

□ **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, 경제전문가의 76.7%가 낙관적 의견을 피력**

## <별 첨 : 조사 결과 요약표>

설문요지	조사항목	경제전문가
1. 경험부문 전반적 평가	① 매우 긍정적	21.2%
	② 긍정적인 편	51.9%
	①+② 긍정적	<b>73.0%</b>
	③ 보통	16.1%
	④ 부정적인 편	10.1%
	⑤ 매우 부정적	.8%
	④+⑤ 부정적	10.8%
1-1 긍정 평가 이유	① 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	29.3%
	② 경험 증대로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	<b>56.5%</b>
	③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통일비용이 절감되기 때문	13.8%
	기타	.4%
1-2 부정 평가 이유	① 경험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	<b>39.0%</b>
	②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	24.4%
	③ 북핵 등 북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	22.0%
	기타	14.6%
2. 가장 기대되는 사업	① ‘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’ 설치	<b>36.0%</b>
	② 안변·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	9.8%
	③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	3.2%
	④ 개성-신의주 철도 및 개성-평양 고속도로 개보수	14.0%
	⑤ 문산-봉동간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물자수송	4.8%
	⑥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	30.7%
	· 무응답	1.6%
3. 사업별 평가 -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	① 매우 기여할 것	25.9%
	② 어느정도 기여할 것	62.7%
	①+② 기여할 것	<b>88.6%</b>
	③ 기여하지 못할 것	8.7%
	④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	2.4%
	③+④ 기여 못할 것	11.1%
	· 무응답	.3%
4. 사업별 평가 - SOC투자	① 적극 동의	28.0%
	② 동의	57.9%
	①+② 동의함	<b>86.0%</b>
	③ 동의 안함	13.0%
	④ 전혀 동의 안함	.8%
	③+④ 동의안함	13.8%
	· 무응답	.3%

설문요지	조사항목	경제전문가
5. 사업별 평가 - 조선협력단지	① 매우 기여할 것	28.0%
	② 어느정도 기여할 것	65.1%
	①+② 기여할 것	<b>93.1%</b>
	③ 기여하지 못할 것	5.6%
	④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	.3%
	③+④ 기여 못할 것	5.8%
	· 무응답	1.1%
6. '일방적 퍼주기'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	① 적극 동의	9.3%
	② 동의	39.2%
	①+② 동의함	48.4%
	③ 동의 안함	41.3%
	④ 전혀 동의 안함	10.3%
	③+④ 동의안함	<b>51.6%</b>
7-1. 선결조건: 북미관계 진전 등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	② 필요없음	.3%
	①+② 필요없음	.3%
	③ 보통	3.7%
	④ 필요함	52.4%
	⑤ 매우 필요	43.7%
	④+⑤ 필요있음	<b>96.0%</b>
7-2. 선결조건: 국민적 합의	③ 보통	5.8%
	④ 필요함	51.6%
	⑤ 매우 필요	42.6%
	④+⑤ 필요있음	<b>94.2%</b>
7-3. 선결조건: 북핵 해결 등 긴장완화	③ 보통	3.2%
	④ 필요함	34.1%
	⑤ 매우 필요	62.4%
	④+⑤ 필요있음	<b>96.6%</b>
	· 무응답	.3%
7-4. 선결조건: 북한의 확고한 추진의지	③ 보통	2.1%
	④ 필요함	29.9%
	⑤ 매우 필요	68.0%
	④+⑤ 필요있음	<b>97.9%</b>
7-5. 선결조건: 차기정부의 이행의지	③ 보통	2.1%
	④ 필요함	43.9%
	⑤ 매우 필요	53.7%
	④+⑤ 필요있음	<b>97.6%</b>
	· 무응답	.3%

설문요지	조사항목	경제전문가
7-6. 선결조건: 재원조달 방안마 련	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 ④+⑤ 필요있음	4.5% 41.5% 54.0% <b>95.5%</b>
7-7. 선결조건: 3통 등 전반제도 보장장치 완비	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 ④+⑤ 필요있음 · 무응답	5.6% 44.7% 49.5% <b>94.2%</b> .3%
7-8. 선결조건: 경험 참가 민간기 업에 대한 인센티 브 제공	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없음 ①+② 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 ④+⑤ 필요있음	.8% 6.6% 7.4% 27.5% 45.5% 19.6% <b>65.1%</b>
8. 대북지원 방법	①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 가며 지원 ② 북핵 문제에 상관없이 선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③ 잘 모르겠다	<b>69.3%</b> 29.6% 1.1%
9. 재원조달 방법	① 남북경제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조달 ② 일반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활용 ③ 민간자본 유치 ④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조달 ⑤ 동북아개발은행(가칭) 설립을 통한 조달 기타 · 무응답	20.4% 5.0% <b>41.5%</b> 13.2% 14.8% 4.5% .5%
10. 경험투자를 위해 필요한 담보조치	① 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책당국의 안전보장 ② 북한의 투자관련 제도 개선 ③ 국제적 이미지 하락 우려 해소 ④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이행 의지 기타 · 무응답	<b>42.1%</b> 24.1% .3% 31.0% 2.1% .5%
11. 남북경협 전망	① 매우 낙관적 ② 낙관적인 편 ①+② 낙관적 ③ 비관적인 편 ④ 매우 비관적 ③+④ 비관적 ⑤ 잘 모르겠다 · 무응답	3.4% 73.3% <b>76.7%</b> 13.5% .5% 14.0% 9.0% .3%